

사도행전에서 D(05)의 신학적 경향

Theological Tendency of the Uncial D (05) in the Book of Acts

저자 (Authors)	송영목 Young-Mog Song
출처 (Source)	신학논단 87 , 2017.3, 181-207(27 pages) Theological Forum 87 , 2017.3, 181-207(27 pages)
발행처 (Publisher)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29877
APA Style	송영목 (2017). 사도행전에서 D(05)의 신학적 경향. 신학논단, 87, 181-207
이용정보 (Accesse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18.233.220.*** 2020/02/17 17: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사도행전에서 D(05)의 신학적 경향

송영목*

I. 들어가면서

신약 사본의 분류는 크게 알렉산드리아계열과 다수사본으로 양분되지만, D(05)때문에 사도행전의 경우는 더 복잡하게 분류된다. 이것은 매츠거(B.M. Metzger)의 신약 본문비평 해설서에서 사도행전이 전체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데서 볼 수 있다.¹⁾ D의 가치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 사본이 AD 2세기라는 매우 이른 서방계열의 선조 본문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²⁾ 더구나 D는 다른 사본들에 있는 표현을 종종 생략하기에, 원본(혹은 2세기 선조 본문)에 가까운 짧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한 예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Westcott-Hort)는

* 고신대학교 부교수, 신약학

1) 브루스 매츠거/장동수 옮김,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214-432.

2) Eldon, J. Epp, "Coptic Manuscript G67 and the Role of Codex Bezae as a Western Witness in Acts," *JBL* 85, no 2 (1966), 198.

이런 짧은 D 본문을 다소 난해한 표현인 ‘서방본문 가운데 후대에 삽입되지 않은 본문들’(Western non-interpolations; 이하 WNI)이라 명명했다.³⁾ 카터(T. Carter)는 WNI가 발생한 시점은 2세기 말시온이 누가복음을 축소할 무렵이라고 추정하기에, 5세기에 D가 필사될 때 참고한 2세기 경의 선조본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WNI를 원본에 가까운 권위있는 표현으로 판단했는데, 현재까지 이 가설을 수용하는 학자들은 주로 영어권에 있다. D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반론도 있다. 예레미아스(J. Jeremias)와 알란트 부부(K. Aland, B. Aland)처럼 주로 독일학자들은 D보다 더 오래된 파피루스(29, 38, 48, 75 등)가 가지고 있는 생략되지 않은 긴 표현을 근거로 하여 위의 주장을 비판했다.⁵⁾

이 논문의 주제와 직결되는 D의 신학적 경향과 관련한 진지한 연구가 지난 세기 중반부터 있어 왔다. 한 예로, 1960년대에 엡(E. J. Epp)은 보충 설명을 즐기는 D의 신학적 경향은 반(反)유대교적이며 고등기독교론적이라 결론을 내렸다.⁶⁾ 그리고 D가 반(反)여성적 성향을 띤다는 연구도 있다.⁷⁾ 하지만 여전히 D의 기원과 신학적 경향에 대한 이견은 분분한데, 모든 선행 연구들은 부분적 해결책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

3)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알렉산드리아계열을 중립본문으로 간주했기에, WNI보다 더 쉬운 표현인 ‘Alexandrian interpolations’를 사용하지 않았다.

4) Tim Carter, “Marcion’s Christology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Codex Beza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1, no 2 (2010), 550.

5) Klyne Snodgrass, “Western Non-Interpolation,” *JBL* 91, no 3 (1972), 372-375, 379; Michael W. Martin, “Defending the Western Noninterpolations: The Case for Anti-Separationist Tendency in the Longer Alexandrian Readings,” *JBL* 124, no 2 (2005), 270.

6) Eldon J. Epp,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ezae Cantabrigiensis in Ac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41-164; “The Ignorance Motif in Acts and Anti-Judaic Tendencies in Codex Bezae,” *Harvard Theological Review* 55, no 1 (1962), 53.

7) Ben Witherington III, “The Anti-Feminist Tendencies of the Western Text in Acts,” *JBL* 103 (1984): 82-83.

다면, 요더(J.D. Yoder)의 주장대로 D는 문체나 신학적 성향에 있어서 동질성(同質性)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가?⁸⁾ 결국 스트리터(B.H. Streeter, d. 1937)의 고찰처럼, D는 여전히 신약 본문비평가들에게 워털루(Waterloo)와 같은가?⁹⁾ 즉 동질성이 떨어진 사본을 연구하는 것은 별다른 성과 없이 학자들에게 패배감만 안겨줄 뿐인가? D와 관련된 논의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D의 기원: 팬턴 등이 주장대로 D가 제작된 곳은 콥틱어와 라틴어를 함께 사용한 이집트인가? 혹은 ‘서방사본’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서로마제국인가? (2) D가 추가한 표현에 나타난 신학적 경향은 반유대적이며 고등기독교론적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내부적 견해를 반영한 사본인가? 그리고 D는 반(反)여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3) D가 표현들을 종종 생략한 시점은 2세기 이단 말시온이 정경을 축소할 무렵에 영향을 받은 결과인가? D가 종종 생략한 표현은 원본에 일치하는가? 아니면 D의 필사자는 단어들의 유사한 어미를 혼동했거나, 단어의 잉여적 의미 때문에 생략했는가? (4) D는 누가의 표현을 보존하고 있으며, 필사자가 심사숙고한 동질성 있는 사본인가? 아니면 D는 신학적-언어적으로 동질성이 떨어지는가? (5) D의 가치는 콥틱 역본보다 못한가? 아니면 팬턴 등이 주장하듯이, D는 알렉산드리아계열의 주요 라이벌인가?¹⁰⁾

오래 전에 신약 사본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D를 국내에서 연구

8) James D. Yoder, "The Language of the Greek Variants of Codex Bezae," *Novum Testamentum* 3, no 4 (1959), 246-247.

9) Epp, "The Ignorance Motif in Acts and Anti-Judaic Tendencies in Codex Bezae," 51.

10) 서방본문의 뿌리가 되는 본문의 원시성(primitive character)을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은 Kenneth E. Panten, Tim Carter, Barth D. Ehrmann, Marie-Émile Boismard, Arnaud Lamouille, Josep Rius-Camps, William Hendriksen, D. Rouger, Eberhard Güting, A. Ammassari 등이며, 반대하는 학자들은 Eldon J. Epp, Joachim Jeremias, Kurt Aland, Barbara Aland, James Keith Elliott, Edouard Delebecque 등이다.

한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고영렬의 논문 이외에 거의 없다. 약 50년 전부터 제기된 D의 기원, 추가된 표현과 생략된 표현에 나타난 신학적 성향, 동질성,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사도행전에서 D의 신학적 경향이 있다면 어떤 특징인지 살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GNT5의 비평장치를 따라 연구하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D가 독자적 경향을 크게 보이는 36개 본문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38개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고려하여 이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경향과 관련된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II. 본문비평 연구

위에서 언급했듯이, GNT5의 비평장치를 따라 D의 신학적 경향을 살펴되, 다른 사본군들과 비교할 때 D가 독자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38개 본문을 차례로 연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D가 알렉산드리아계열이나 다수사본과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많은 본문들은 다루지 않는다.

1. 1:2 {A}

P⁷⁴ & B 다수사본: ἡμέρας ... ἐξελέξατο ἀνελήμφθῃ

D: ἡμέρας ... ἐξελέξατο καὶ ἐκελεύσεν κηρύσσει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

일부 이탈리아 별게이트 시리아 콥틱어 역본, 사히딕 역본, 어거스틴, 바리마둠과 더불어 D는 ‘그가 올리워지셨다’(ἀνελήμφθῃ)를 생략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καὶ ἐκελεύσεν κηρύσσει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를 추가한다(참고, 행 15:7의 ‘복음’; 라틴어: et praecepit praedicare evangelium).¹¹⁾ 그렇다면 이 추가는 후대의 첨가인가, 아니면 원본

인가? GNT5 편집자들은 D의 표현을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후대의 첨가로 판단하여 본문 비평등급 {A}를 매겼다.¹²⁾ 그런데 GNT5는 1:2 비평장치에서 D가 ‘올리워지셨다’(ἀνελήμφθη)를 포함하는 것처럼 잘못 설명한다. D가 ἀνελήμφθη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9:51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동사는 하늘로 들려올려지는 승천 이외에도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승귀까지 포함하는 50일 동안의 일련의 사건을 가리키므로 1:2 상반절의 단수 명사 ‘1일’(ἡμέρας)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가? 하지만 원본이 ἀνελήμφθη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팔슨스(M. C. Parsons)가 간파한 것처럼 사도행전 1:1-3의 병행적인 사고 구조가 이를 증명한다.¹³⁾

A 1절: 예수행동(ποιεῖν) + 예수님의 가르침(διδάσκειν)

B: 2절 예수행동(ἐντειλάμενος) + 예수님의 행동(ἀνελήμφθη)

A': 3절 예수행동(παρέστησεν ... ὅτανόμενος) + 예수행동(ἀνελήμφθη) + γων τὰ περ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 τοῦ θεοῦ

덧붙여 누가복음 24:51에도 주님의 승천을 묘사하기 위해서 신적수동태 동사 ἀνεφέρετο(was being carried up)가 생략되지 않고 사용된다.

2. 1:11 {A}

D: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을 생략

⌘, B, 다수사본이 포함하는 ‘하늘 안으로’(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를 D는 왜

11) D의 헬라어와 라틴어 본문의 비교는 J. Rendel Harris, *Study of Codex Bezae: A Study of the so-called Western Text of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 Stock, 2004), 215-225를 보라.

12)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29; Hans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87), 3

13) Mikeal Carl Parsons, “The Text of Acts 1:2 reconsidered,” *CBQ* 57 (1988), 63, 70.

생략하는가? 즉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하늘 안으로’가 왜 불필요할까? ‘하늘’(οὐρανός)은 누가-행전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눅 2:15; 4:25; 10:18; 15:18, 21; 17:29; 행 2:19; 7:55-56). D 필사자는 11절 바로 앞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 그렇다면 D가 지지하는 이 짧은 표현이 원본인가? GNT5 편집자들은 ‘하늘 안으로’를 원본으로 보았으므로, D의 경우 후대의 우발적 생략으로 판단하여 비평등급을 {A}로 매겼다.¹⁴⁾ 표현의 반복은 강조를 위한 기법이다.

3. 2:18b {A}

D: καὶ προφητεύουσιν을 생략

P⁷⁴, ⁸, B, 다수사본이 포함하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를 D는 생략한다. 동사 ‘예언하다’(προφητεύω)동사는 누가-행전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눅 1:67; 22:64; 행 19:6; 21:9). 요엘 2:29는 이 표현을 포함하지 않기에 D 필사자가 생략했다고 볼 수 있다.¹⁵⁾ 혹은 D 필사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예언이 중요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D 필사자와 공동체에 예언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른다. 17절에 προφητεύουσιν이 이미 언급되기에 D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¹⁶⁾

4. 2:19 {A}

D: αἶμα καὶ πῦρ καὶ ἀτμίδα καπνοῦ를 생략함

14)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37.

15) 앞의 책, 249.

16) 고영렬, “D 사본(Codex Bezae, 05)과 사도행전 2:17-21 읽기,” 『신약논단』 19, no. 4 (2012): 1094.

P⁷⁴, \aleph , B, 다수사본이 포함하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를 D는 왜 생략하는가? 이 생략으로 인해 누가의 의도가 모호하게 되었다.¹⁷⁾ 누가가 인용한 요엘 2:30은 이 표현을 포함하기에, D 필사자는 자신이 인용한 히브리어 본문에 맞추지 않는다. 19절에서 ‘피’ 앞의 $\kappa\acute{\alpha}\tau\omega$ (아래)와 비슷한 철자인 $\kappa\alpha\pi\nu\omicron\iota$ (연기)를 혼동하여 중간의 표현을 생략(parablepsis)했을 수 있다.¹⁸⁾ D가 신현은 물론 심판을 가리키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를 생략함으로써, 사도행전 2장의 흐름에 맞추었다고 이해하는 것은¹⁹⁾ 뒤 따르는 20절의 심판의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해다.

5. 2:30 {B}

\aleph B: $\kappa\alpha\theta\acute{\iota}\sigma\alpha\iota$

D: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앉으시고”

\aleph 와 B는 $\kappa\alpha\theta\acute{\iota}\sigma\alpha\iota$ (앉다)라고 표기하지만, D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앉으시고”라고 표현을 확대한다. D는 알렉산드리아계열 보다는 다수사본과 더 유사하며, 인용 구절인 삼하 7:12와 시편 132:11에 맞추었을 수 있다.²⁰⁾ 결과적으로 D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신성을 강조한다.²¹⁾ 따라서 2:30에서 D 필사자의 고등기독론을 볼 수 있다(참고. D의 18:8; 20:21). D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들(*nomina sacra*)의 축약된 형태는 베자사본을 기록한 이른바 ‘D 공동체’가 성자와 성부를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겼

17)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20.

18)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49.

19) 고영렬, “D 사본(Codex Bezae, 05)과 사도행전 2:17-21 읽기,” 1095.

20)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51.

21) Darrell L. Bock,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9), 139.

음을 보여준다.²²⁾

6. 2:47-3:1 {B}

P^{74, 91} ⋈ B: ἐπὶ τὸ αὐτό. Πέτρος δὲ

D: 2:47에 ‘교회 안에’를 추가하고, 3:1에 ‘그리고 이 날들에’를 추가함
이 경우는 ἐπὶ τὸ αὐτό의 의미 파악이 열쇠다. 이 전치사구가 ‘크게’라는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몸의 일치(행 2:1; 고전 11:20) ‘교회의 교제 가운데’를 의미하는가? 후자가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D 필사자가 이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 ‘교회 안에’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몇 시’라고 표현할 때, ‘이 날들에’라는 표현을 추가하지 않기에(예. 행 2:15; 10:30), 3:1의 ‘이 날들에’도 부연 설명으로 보인다.

7. 3:21 {B}

P⁷⁴ ⋈ B: ἀπ’ αἰῶνος αὐτοῦ προφητῶν

D: προφητῶν

알렉산드리아계열보다 훨씬 짧은 표현을 견지하는 D가 ἀπ’ αἰῶνος αὐτοῦ(영원으로부터 자신의)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들이 영원 전부터 예언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D 필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²⁴⁾ 하지만 알렉산드리아계열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가 영원 전부터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영원한 섭

22) 고영렬, “Nomina Sacra와 베자사본,” 『신약논단』 20, no. 1 (2013), 213.

23)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56.

24) 앞의 책, 264.

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더 어려운 표현인 ‘영원으로부터 자신의’를 포함한다. 참고로 아프리카스 성경은 ‘이미 오랫동안’(reeds lank)이라고 의역한다.

8. 4:6 {A}

P⁷⁴ B: Ἰωάννης

D: Ἰωνάθας

‘요한’과 ‘요나단’(Ἰωνάθας)은 다른 인물인가? D 필사자는 요세푸스의 다음 주장에 일치시킨다: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AD 36년에 가야바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유대고대사 18.95).²⁵⁾

9. 4:12 {A}

P⁷⁴ B: οὐκ ἔστιν ἐν ἄλλῳ οὐδενὶ ἢ σωτηρία

D: οὐκ ἔστιν ἐν ἄλλῳ οὐδενὶ

D가 누가-행전에 종종 나타나는 ‘구원’(ἢ σωτηρία)을 생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눅 1:69, 71, 77; 7:25; 19:9; 행 13:26, 47; 27:34). 뒤 따르는 ἐν ᾧ δεῖ σωθῆναι ἡμᾶς(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 이름)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구원’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²⁶⁾

10. 5:29 {A}

P⁷⁴ B 다수사본: ἀποκριθεὶς δὲ Πέτρος καὶ οἱ ἀπόστολοι εἶπαν

D: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를 29절 마지막에 배치함

25)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32;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67.

26)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67.

D의 경우 “그리고 사도들이 대답했다”(ἀποκριθεὶς καὶ οἱ ἀπόστολοι εἶπαν)를 생략하기에, 동사는 자연스럽게 3인칭 복수(εἶπαν)에서 베드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단수(εἶπεν)로 대체된다.²⁷⁾ 또한 D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29절 맨 뒤에 배치한다. 베드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기에, D의 출처를 이집트 대신에 베드로가 말년을 보낸 로마와 같은 서로마제국의 한 도시로 볼 여지가 있다.

11. 5:39 {A}

P⁷⁴ B: αὐτούς

D: αὐτούς 다음에 “너희나 왕들이나 전제군주들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로부터라면 너희가 금지해야 한다(ἀπέχεσθαι)”를 추가함²⁸⁾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산헤드린이 사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D의 이런 긴 추가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서』 12:13 이하를 반영하는가?²⁹⁾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라면 너희가 금지해야 한다”는 바로 앞 38절 내용과 중복되기에, 일종의 부연 설명이다.

12. 8:24 {A}

P⁷⁴ B 다수사본: ἐπ’ ἐμὲ ὧν εἰρήκατε

D: “당신들이 나에게 말한 이 재앙들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임하지

27) 앞의 책, 280.

28) GNT5의 행 5:39의 비평 장치에 오자(ἀτρέχασθε)가 있다.

29)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84.

말게 하소서. 그가 많이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돈으로 성령을 주관하려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말한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청한다. D는 성령론과 관련된 이 구절에서, 마술사 시몬의 후회 혹은 회개(참고, 이레니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1.23.1)의 눈물을 긍정적으로 강조한다.³⁰⁾ D의 표현의 역사성은 확인할 길이 없다.

13. 10:30 {B}

P⁷⁴ B: ἐνάτην

D P⁵⁰: “금식하면서 9시에”

짧은 표현 ‘9시에’인가, 아니면 “(3일 전에) 금식하면서 9시에”인가?(참고, 행 10:9, 24; 13:3) 금식 후 세례(10:48)라는 그 당시의 성례 관습에 익숙한 필사자가 금식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³¹⁾ 결과적으로 D는 고벨료를 경건한 사람으로 부각한다.

14. 11:2 {A}

P^{45, 74} B: Ὅτε δὲ ἀνέβη Πέτρος εἰς Ἱερουσαλήμ, διακρίνοντο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ἐκ περιτομῆς

D P¹²⁷: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를 꽤 오랫동안 소망했다. 그리고 형제들을 자기에게 불러서 그들을 견고하게 한 후에 그가 떠나,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많이 말하고 그들을 가르쳤다. 그가 또한 그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그러나 할레와 형제

30) Bock, *Acts*, 337;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04.

31)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21.

들이 그와 다투어 말하기를”

이 구절에서 D는 매우 길게 첨가한다. 11:2는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
에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문맥에 위
치한다. D는 고넬료의 개종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지
역에서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긍정적
면을 색채감 있게 부각시킨다.³²⁾ 사도행전 5:29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베드로의 긍정적 면이 부각된다.

15. 11:17b {A}

P⁷⁴ B 다수사본: *θεόν*

D: “그들이 그를 믿은 후에 그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지 못하도록”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하는데, 바로 앞의 “하나님을 막겠느냐?”(*κα
ωλῦσαι τὸν θεόν;*)가 무슨 의미인가를 부연 설명한다.³³⁾ 사도행전 8:24
처럼 여기서도 성령론과 관련된 부가 설명을 볼 수 있다.

16. 11:28 {A}

P⁷⁴ B 다수사본: *Ἀναστὰς δὲ εἷς ἐξ αὐτῶν ὀνόματι Ἁγαθος, ἐσήμα
νευ*

D: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손짓하며 말하되”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하는데, 이 첨가가 원본이라면 11:28은 사
도행전의 첫 ‘우리’ 문구(We-passage)다.³⁴⁾ D는 사도행전에 종종 나타나

32) 앞의 책, 326-327.

33) 앞의 책, 329.

는 ‘기쁨’ 주제를 강조하며(참고. 2:46; 5:41; 6:5; 8:39; 11:23; 13:52; 16:34; 21:17; 24:10), 손짓이라는 수사학적 제스처를 언급한다(참고. 19:33; 21:40). 따라서 D 필사자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와 문학적 기법을 존중하여 동화시킨다.

17. 12:23 {A}

P⁷⁴ B 다수사본: γενόμενος σκωληκόβρωτος

D: “그리고 그가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충이 먹었고 그래서 죽었다”

헤롯 아그립바의 죽음의 원인을 묘사하는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한다. D는 주의 사자가 아그립바를 쳤지만 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추가적 묘사의 역사적 신빙성은 확인할 길이 없다. 참고로 요세푸스는 (헤롯 대왕이 건축한 가이사라 극장에서) 아그립바의 죽음을 언급하지만, 누가와 달리 그의 죽음의 원인을 신적 개입과 직결시키지 않는다(유대고대사 19.345-47).³⁵⁾

18. 13:27 {A}

P^{45, 74} B 다수사본: τοῦτον ἀγνοήσαντες καὶ τὰς φωνὰς τῶν προφητῶν τὰς κατὰ πᾶν σάββατον ἀναγινωσκομένας κρίναντες

D: “안식일마다 공개적으로 읽히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한 채 정죄했다”

D는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에 관하여 예루살렘의 유대지도자들이

34)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90; Schnabel, *Acts*, 525.

35) Eckhard J. Schnabel, *Act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543.

예수님을 몰랐다는 언급을 생략하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 부각시킨다.³⁶⁾

19. 13:33 {B}

P⁷⁴ B: τῷ φαλμῷ γέγραπται τῷ δευτέρῳ

D: “첫째 시편에 기록된”

‘둘째 시편에 기록된’(τῷ φαλμῷ γέγραπται τῷ δευτέρῳ) 대신에 D는 ‘첫째 시편에 기록된’으로 표현한다. D 필사자는 저자 미상의 시편 1-2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하는 그 당시의 관습을 알고 있었다(참고. 저스틴, 『변증서』 1.40; 터툴리안, 『말시온에 대항하여』 4.22).³⁷⁾ 그런데 사도행전 13:33에서 B는 시편 2:7만 인용하지만, D는 시편 2:7과 8절도 인용한다. 따라서 D는 땅 끝의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우주적 안목을 강조한다.³⁸⁾

20. 13:43b {A}

P⁷⁴ B 다수사본: θεοῦ

D: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한다. D 필사자는 복음의 능력과 확장을 강조한다. D의 표현처럼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결과는 몇 차례에 걸쳐 요약

36) Josep Rius-Camps and Jenny Read-Heimerdinger,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A Comparison with the Alexandrian Tradition* (Edinburgh: T&T Clark, 2007), 74-75.

37)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105; 매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53.

38) Epp,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ezae Cantabrigiensis in Acts*, 80.

적으로 진술된다(2:41, 47; 3:10; 5:42; 6:7; 12:24; 16:5; 참고. D의 19:20).

21. 15:2 {A}

P⁷⁴ B 다수사본: ἔταξαν ἀναβαίνειν Παῦλον καὶ Βαρναβᾶν καὶ τιν
ας ἄλλους ἐξ αὐτῶν

D: “바울이 그들이(즉 이방인 개종자들) 개종할 때의 상태(즉 할례 혹은 무할례)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주장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들로, 곧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으로 올라가”

시리아 안디옥교회를 어지럽히던 기독교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는 장면을 다루는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한다.³⁹⁾ 여기서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유대적 성격을 볼 수 있다.⁴⁰⁾

22. 15:7 {A}

P⁷⁴ B 다수사본: ἀναστὰς Πέτρος

D: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D는 “성령 안에서(성령의 인도로써)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씀으로써 베드로가 발언한 것을 성령론적 차원으로 설명한다(참고. 성령론적 강조: 8:24; 11:17b). D의 사도행전 15:29c, 32에도 이런 성령론적 부가 설명이

39) 매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65-366.

40) Rius-Camps and Read-Heimerdinger,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177; Epp,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ezae Cantabrigiensis in Acts*, 102.

발생한다.⁴¹⁾ 따라서 D 필사자는 베드로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참고. 베드로의 긍정적 모습을 부각시키는 5:9; 11:2; 15:12). 사도행전에서도 중후반부에 바울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데, 15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23. 15:12 {A}

P⁷⁴ ⌘ B 다수사본: Ἐσίγησεν δὲ

D: “장로들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자”

바로 앞의 15:7처럼 이 구절에서도 D는 표현을 첨가하여, 예루살렘공회의 당시에 베드로의 위신과 권위를 긍정적으로 강조한다(참고. 5:9; 11:2; 15:7).⁴²⁾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무리가 침묵한 것(Ἐσίγησεν δὲ πᾶν τὸ πλῆθος)은 베드로의 설명(15:7-11)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24. 15:20b {C}

P⁴⁵ ⌘ 다수사본: καὶ τοῦ πνικτοῦ

D: 생략

D는 사도 칙령에서 ‘목매어 죽인 것’(τοῦ πνικτοῦ)을 생략한다. 동일한 현상이 15:29a에도 나타난다.⁴³⁾ D 필사자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동일한 의미의 중복으로 이해한 것 같다.⁴⁴⁾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 육질에

41) Bock, *Acts*, 508.

42)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368.

43) 브루스 매즈거/강유중, 장국원 옮김, 『사본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67.

44) Bock, *Acts*, 509.

피가 많이 함유되기 때문이다.

25. 15:20c {A}

P^{45, 74} ⋈ B 다수사본: αἵματος

D: αἵματος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D는 ‘목매어 죽인 것’(πνικτοῦ) 대신에 부정적 황금률을 추가한다(참고, 토빗 4:15). 동일한 현상이 15:29a에도 나타난다. 부정적 황금률은 사도 칙령의 유대주의 의식적 특성을 더 광범위하게 윤리적으로 전환시키는데, D가 필사될 당시의 교회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참고, 행 3:17에서 D는 윤리적 뉘앙스로 ‘악한’을 추가함).⁴⁵⁾

26. 16:12 {D}

이탈라 교정본 벌게이트 슬라브어: πρώτης μερίδος τῆς

P⁷⁴ ⋈: πρώτη τῆς μερίδος

D: κεφαλῇ τῆς

사도행전에서 비평등급이 {D}이기에 드문 경우다. 흥미롭게도 GNT5는 헬라어 사본 대신 고대 역본의 표현을 따른다. 그렇다면 그리스어의 빌립보는 그 지역의(μερίδος) ‘첫째’(πρώτη) 도시인가, ‘머리, 수도’(κεφαλῇ) 도시인가? 바울 당시 인구 5,000-10,000명이었던 빌립보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도시(leading city)였지만, 수도(provincial/district capital)는 데살로니가였다.⁴⁶⁾ 따라서 D를 원본으로 보기 어렵고 P74와 ⋈의 표현이 자

45) 앞의 책, 183, 509; Epp,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ezae Cantabrigiensis in Acts*, 110.

46) Rius-Camps and Read-Heimerdinger,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266; Conzelmann,

연스럽다.

27. 16:35a {A}

P^{45, 74} B 다수사본: ἀπέστειλαν οἱ στρατηγοὶ

D: “날이 새매 상관들이 시장에 모여 지진이 발생한 것을 상기고는 두려워하여 아전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이 구절에서 D는 지진과 놀람을 포함시켜 길게 부연 첨가한다. D는 구전에 근거한 표현으로 추정되며, 역사적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28. 16:39 {A}

P^{45, 74} B 다수사본: ἐλθόντες παρεκάλεσαν αὐτοὺς καὶ ἐξαγαγόντες ἡρώτων ἀπελθεῖν ἀπὸ τῆς πόλεως

D: “많은 친구들(빌립보의 치안관리들의 동료)과 함께 감옥에 도착하여, 그들이 ‘우리가 당신들에 관한 진실과 당신들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떠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들이 당신들을 대적하여 외치며 다시 우리에게 모여들지 않도록, 이 성에서 떠나시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청하였다”

D는 매우 길게 빌립보의 치안관리들의 요구와 간청을 길게 첨가한다. 이 첨가는 치안관리들의 친구들을 등장시키고, 동시에 바울과 실라의 무죄를 강조한다. 앞의 16:35처럼 여기서도 긴 첨가의 역사적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긴 첨가는 D필사자가 참고한 사본의 영향일 수도 있다.

Acts of the Apostles, 130; Schnabel, *Acts*, 679.

29. 18:8 {A}

P⁷⁴ B 다수사본: καὶ ἐβαπτίζοντο

D: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D는 고린도의 많은 이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기독교론적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도 고등 기독교론을 볼 수 있다(참고. 2:30). 사도행전에서 온전한 기독교론적 호칭을 세례와 믿음과 연결하는 것은 전형적인 연설 형태이다.⁴⁷⁾

30. 18:21 {A}

P⁷⁴ B: εἰπών

D: εἰπών 바로 뒤에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를 추가함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하는데,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던 신적 필연성(δεῖ)을 추가로 설명한다.⁴⁸⁾

31. 19:1 {A}

P⁷⁴ B 다수사본: Ἐγένετο δὲ ἐν τῷ τῶν Ἀπολλῶ εἶναι ἐν Κορίνθῳ Παῦλον διελθόντα τὰ ἀνωτερικὰ μέρη κατελθεῖν εἰς Ἑφῆσον

D: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

47) Rius-Camps and Read-Heimerdinger,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365.

48) 앞의 책, 385, 391.

서 아시아에 돌아가라고 명하셨다. 그가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 구절에서 D는 길게 첨가함으로써,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했다고 긍정적으로 그를 묘사한다. 따라서 성령님은 사도의 선교를 주관하신다(참고. 8:24; 11:17b).

32. 19:9 {B}

P⁷⁴ B: *Τυράννου*

D: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 오시부터 제 십시까지”

이 구절에서 D는 두란노 서원(hall of Tyrannus)에서 바울이 강론했던 시간표를 첨가하는데, 구전으로 알려진 정보로 보인다.⁴⁹⁾ 오전 11-오후 4시에 낮잠(siesta)을 즐기는 시간이 포함되는데, 두란노 강의실은 수사가 두란노가 강의하지 않아 비어있어서 바울이 활용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다.⁵⁰⁾ D가 추가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강조한다.⁵¹⁾

33. 19:20 {B}

B: τοῦ κυρίου ὁ λόγος ἤρξανεν καὶ ἴσχυεν

D: “이와 같이 그것이 힘있게 널리 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증대되었다”

D의 첨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효과와 결실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49)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405.

50) Schnabel, *Acts*, 792.

51) Epp,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ezae Cantabrigiensis in Acts*, 95.

강조한다. 복음 전파의 결실에 대한 요약적 진술은 사도행전의 특징이다 (참고, D의 13:43b).

34. 20:4a {B}

P⁷⁴ B: συνείπετο δὲ αὐτῷ

D: “그러므로 그가 떠나려 할 때에 아시아까지”

다수사본과 유사한 D는 “그러므로 그가 떠나려 할 때에 아시아까지”라고 표현한다. 유사하게 개역개정판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이라 번역하지만, 아프리카스성경과 바른성경은 ‘아시아까지’를 생략한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계열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는”이라고 쓴다. D가 ‘아시아까지’를 추가한다고 해서 필사자가 소아시아(참고, 시리아어 역본에는 ‘에베소’) 출신인지 불분명하다.⁵²⁾

35. 20:21 {B}

B 다수사본 일부: εἰς τὸν κύριον ἡμῶν Ἰησοῦν

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D는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기독교론적 표현을 완전하게 나타낸다. 일종의 고등 기독교론적 표현이다(참고, 2:30; 18:8).

36. 21:16-17 {A}

P⁷⁴ B 다수사본: ξενισθῶμεν Μνάσωνι ... Γενομένων δὲ ἡμῶν

52) 매즈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409.

D: “그리고 이들이(가이사라의 제자들) 우리와 함께 목을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데려가니 우리가 어떤 마을에 이르매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과 함께 우리가 머물렀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D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틀에 걸친 여정에 관한 약간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구전에 기인한 추가로 보인다. D와 알렉산드리아계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37. 21:25a {C}

P⁷⁴ ⌘ 다수사본: ἡμεῖς ἐπεστείλαμεν

D: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그들이(유대 기독교인들) 너희에게 할 말이 없으리니, 우리가 ... 피하는 것 외에는 그와 같은 것을 아무 것도 지키지 말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

알렉산드리아계열과 다수사본은 짧게 ‘우리가 편지했다’(ἡμεῖς ἐπεστείλαμεν)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D의 첨가는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⁵³⁾ 여기서도 반유대적 성격을 볼 수 있다.

38. 21:25b {B}

P⁷⁴ ⌘ B: κρίναντες φυλάσσεσθαι αὐτοὺς

D: “그들이 피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아무 것도 지키지 말 것을 결정하고”

알렉산드리아계열은 ‘그들이 피해야 할 것을 결정한 후’(κρίναντες φυ

53) 앞의 책, 417.

λάσσεσθαι αὐτοῦς)로 표현하지만, D는 이방인 성도가 피해야 할 것과 지키지 말 것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사도행전 21:25b에서 바울은 15:20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반복하는데, 여기서도 간접적이지만 반유대적 특성이 나타난다.

III. 종합 및 평가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독자적 경향을 띠는 D는 사도행전에서 신학적 통일성을 견지하는가?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D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사도행전의 전형적인 신학이나 주제나 기법을 따름(11:28; 13:43; 19:20). (2) 표현을 첨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일부 생략하는 경우는 6회임(1:11; 2:18b, 19, 21; 4:12; 15:20b). 구전이나 역사적 정보를 반영하여 부가적 설명을 시도함(4:6; 5:39; 8:24; 19:9; 21:16-17). (3) 고등기독론(2:30; 18:8; 20:21). (4)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성령론(8:24; 11:17b; 15:7, 29c, 32; 19:1). (5) 베드로에 대한 긍정적 묘사(5:29; 11:2; 15:7; 15:12). (6) 반유대적 특성(15:2, 20bc; 21:25ab; 참고. 3:17; 13:27). (7) D 필사자 당시의 교회의 관습을 반영(10:30; 13:33). (8) 바울에 대한 긍정적 묘사(16:39; 19:1). (9) 합리적 사고(3:21). (10) 인용한 구약의 표현에 일치시키거나 (2:18b),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2:19). (11) 윤리적 교훈을 강조함 (15:20c). (12) 반여성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이상의 38개 본문에 관한 제한적 연구를 통해서 D의 진술은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승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하신 주제에 잘 부합한다. 복음은 반유대적 특성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로는 사도행전의 종말론이나 교회론이나 윤리를

체계적으로 밝히기는 무리다.⁵⁴⁾

주제어 Keywords

사도행전, D, 본문비평, 신학적 경향, 사본

The book of Acts, D, textual criticism, theological tendency, manuscript

54) 이 글의 서론에서 제기한 5가지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보자.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5가지 질문 전체에 해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에, 제한적인 추론만 제공할 수 있다. (1) D의 제작 장소는 긍정적으로 묘사된 베드로가 순교했고 존경을 받은 로마로 볼 수 있다. (2) D가 추가한 표현에 나타난 신학적 경향은 위에서 밝힌 11가지이다. (3) D가 6회에 걸쳐 생략한 표현(WNI)은 D가 반유대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말시온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말시온의 영향이 D가 제작된 5세기까지 미쳤는지 알 수 없으며, 말시온이 활동한 2세기경에 D의 선조본문이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원본에 있던 반복적 표현과 사상을 피하기 위해서 D 필사자가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4) D의 동질성 여부는 11개나 되는 신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D는 표현을 추가도 하지만 생략도 한다. D 필사자는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5) D의 가치는 콥트 역본보다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알렉산드리아계열의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 D의 선조본문이 가설적이므로, D 필사자들은 알렉산드리아계열 사본을 참고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영렬. "D 사본(Codex Bezae, 05)과 사도행전 2:17-21 읽기." 「신약논단」 19, no. 4 (2012): 1077-1102.
- _____. "Nomina Sacra와 베자사본." 「신약논단」 20, no. 1 (2013): 195-224.
- 매츠거, 브루스/강유중, 장국원 옮김. 『사본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_____/장동수 옮김.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Bock, Darrell L.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2009.
- Carter, Tim. "Marcion's Christology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Codex Beza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1, no. 2 (2010): 550-582.
- Conzelmann, Hans.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87.
- Epp, Eldon J. "Coptic Manuscript G67 and the Role of Codex Bezae as a Western Witness in Acts." *JBL* 85, no 2 (1966): 197-212.
- _____. "The Ignorance Motif in Acts and Anti-Judaic Tendencies in Codex Bezae." *Harvard Theological Review* 55, no 1 (1962): 51-62.
- _____. *The Theological Tendency of Codex Bezae Cantabrigiensis in Ac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Harris, J. Rendel. *Study of Codex Bezae: A Study of the so-called Western Text of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 & Stock, 2004.
- Martin, Michael W. "Defending the Western Noninterpolations: The Case for Anti-Separationist Tendency in the Longer Alexandrian Readings." *JBL* 124, no 2 (2005): 269-294.
- Parsons, Mikeal Carl. "The Text of Acts 1:2 reconsidered." *CBQ* 57 (1988): 58-71.
- Rius-Camps, J. and J. Read-Heimerdinger.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A Comparison with the Alexandrian Tradition*. Edinburgh: T&T Clark, 2007.
- Schnabel, Eckhard J. *Act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Snodgrass, Klyne. "Western Non-Interpolation." *JBL* 91, no 3 (1972): 369-379.
- Yoder, James D. "The Language of the Greek Variants of Codex Bezae." *Novum Testamentum* 3, no 4 (1959): 241-248.
- Witherington III, Ben. "The Anti-Feminist Tendencies of the Western Text in Acts." *JBL* 103 (1984): 82-83.

Abstract

Theological Tendency of the Uncial D (05) in the Book of Acts

Young-Mog Song,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sin University

Generally speaking, the two categories of manuscripts are the Alexandrian text type and Byzantine text type of Majority text. But in the case of the book of Acts, the demarcations of manuscripts are complicated because of the eccentric and maverick codex Bezae Cantabrigiensis (D, 05) as the representative manuscript of the Western text type. Since the mid-20th century, scholars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matters of the origin and theological tendencies of D. Notwithstanding their efforts, their suggestions seem to be partial answers to the questions. An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the 5th century manuscript D is the frequent addition of expressions to explain the meaning of sentences, but this codex omits expressions too. Many scholars regard the additions as later interpolations by the scribes of D. However, D's omissions have been understood in two ways: first, the shorter text caused by omission is close to the original text in the 1st century or has an affinity to the ancestral text of D in the 2nd century. Second, the shorter text is resulted from careless scribal

mistak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heological tendencies of D. In the critical apparatus of the book of Acts in the Greek New Testament 5th edition, D has independent and conspicuous expressions in 38 texts to which the present researcher pays concentrated attention(Acts 1:2, 11; 2:18b, 19, 30; 2:47-3:1, 3:21; 4:6, 12; 5:29, 39; 8:24; 10:30; 11:2, 17b, 28; 12:23; 13:27, 33, 43b; 15:2, 7, 12, 20bc; 16:12, 35a, 39; 18:8, 21; 19:1, 9, 20; 20:4a, 21; 21:16-17, 25ab). Sharing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Acts, three principal theological tendencies of D come to the fore: emphasis on high Christology, frequent mention of the active role of the Holy Spirit, and positive descriptions for the apostle Peter. Secondary theological tendencies are as follows: anti-Judaism, rational thought and decision of D's scribe, reflection of the church customs in the time of D's scribe. Unlike observations on D argued by some scholars, D does not have strong anti-feminist tenden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38 texts. Since D is free from the quoted Old Testament, on the one hand the scribe adjusts his expression to the OT text, on the other hand he does not do so. It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ecclesiology, eschatology, and the ethics of D in Acts by probing the confined 38 texts.

- 투고접수일: 2016년 07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9일